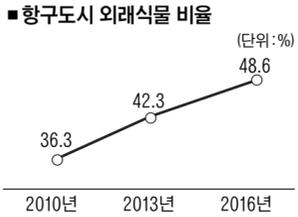


“국제무역 항구, 외래식물 유입 주요 경로”

국립수목원 지역별 정기 조사
항만 3곳 7년새 12%P 증가
미국풀솜나물 등 8종 추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7년간 우리나라 주요 항만 도시의 외래식물 구성 비율이 지난 2010년 36.3%에서 2016년 48.6%로 12%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2008년부터 인위적인 외래식물 유입과 확산의 경로를 목장, 산업도로 및 항구 지역으로 구분하고 외래식물상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 중이다.



주요 항구도시 3곳을 대상으로 부둣가와 화물 이동 경로인 도로 및 철로, 개발지, 빈터를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새로 확인된 외래식물이 8종에 달했다. 확인된 외래식물은 갈퀴지치, 미국풀솜나물, 마

크로카르파달맞이, 처진미꾸리광이, 왕도깨비바늘, 개쇠치기풀 등이다. 항구 지역이 외래식물 유입 주요 경로로 확인된 것이라고 국립수목원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 연구를 통해 항구도시의 전체 식생에서 외래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0년 36.3%에서 2013년 42.3%, 2016년 48.6%로 매년 6% 이상 증가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립수목원은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가 자생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항구도시에서 외래식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국제 무역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래식물 유입될 기회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국립수목원은 설명했다. 도로, 철도, 그리고 제방 건설 등의 외래식물이 정착하기 좋은 개방된 나지라는 점도 원인이다. 나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외래식물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를 주관한 국립수목원 정수영 박사는 “외래식물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자생식물을 사라지게 만들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면서 “외래생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산지를 따져 생물종을 없애는 활동보다는 외래식물의 기능, 유입 후 변화된 자생종들과의 생물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활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과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이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개정안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재계,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무력화 안돼”

피해자측 기자회견서 비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재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민 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가습기 피해자 단체들은 최근 경영자총연합회 등 재계가 ‘화평법 개정안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화평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경영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화평법이 사실상 무력화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면서 “기업의 편의보다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 이윤만 추구한 결과 나온 유례없는 참사”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화평법은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화평법 개정안은 필수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를 위해 지난 1991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유통됐던 ‘기존 화학물질’(7000여종)을 오는 2030년까지 차례로 모두 등록하게 했다.
재계는 이번 화평법 개정안이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 물질의 규모가 너무 크고, 과도한 등록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극심하며, 위반 시 과징금 부담이 과중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5561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1168명에 이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노대동에 탄소 줄이는 숲 조성

광주시 남구는 노대동 물빛근린공원 일원에 호수과 연계된 탄소저감 생활 환경숲을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남구는 올 6월까지 물빛근린공원 일원에 탄소 흡수력과 정화 능력이 뛰어난 수목을 심고 미니 폭포, 의자 등 편의시설을 갖춘 정원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 규모다. 남구는 물빛근린공원 앞 도로변을 따라 호숫가 주변에 이미 조성돼 있는 200m 가량의 녹지대에 탄소저감 능력이 뛰어난 나무와 풀을 식재한다고 설명했다. 소나무를 비롯해 공작 단풍, 산수유, 남천매화나무, 황매화, 동백나무, 백리향, 상록 팽귅 등이 그것이다.
물빛근린공원 맞은편이 노대동 성당 인근에는 인공 바위 암벽을 활용한 암석형 정원을 만든다.
남구는 숲 조성 시 기존에 조성된 인공 구조물 일부 견어낸 뒤 나무와 꽃 등을 식재할 공간을 만들고 등반이 의자를 설치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인공 바위의 벽면을 타고 물이 흐르는 미니 폭포를 조성해 이곳 주민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멸종위기 야생식물이자 한국 특산 식물인 노랑붓꽃이 내장산에서 개화한 모습.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제공>

내장산 노랑붓꽃 이달 개화... “보호해 주세요”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이자 한국특산식물인 노랑붓꽃 개화가 시작되었다고 25일 밝혔다.
노랑붓꽃(Iris koreana Nakai)은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한국특산식물이다. 지역적 제한성, 개체수 위축 등이 인정돼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이자 멸종위기식물 2급으로 지정됐다. 노랑붓꽃은 4월 중순~4월 말 개화하며, 국립공원 내 자생지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하며 출입통제 하고 있다. 장식미 자원보전과장은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서식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내 지정된 정규탐방로만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양동·풍암동 친환경 텃밭 5월까지 분양

1세대당 9.9㎡ 연간 5만원
분양료는 1세대 1구좌(9.9㎡) 분양을 원칙으로 연간 5만원이다. 양동텃밭은 150구좌, 풍암호수 인근 텃밭은 200구좌로 총 350구좌를 분양한다.
분양신청은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100% 친환경 농장으로 운영된다. 농사 경험이 없는 초보 농사꾼을 위한 텃밭가꾸기, 작물별 재배요령 등 전문가의 교육도 진행된다. 도시텃밭 분양 접수 및 운영은 서구청 친환경 도시농업육성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사)광주도시농업포럼에서 진행한다. 분양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광주도시농업포럼(062-959-3413)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형호기자khh@

전국 외래식물 살펴보기

국립수목원 책 발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귀화식물 등 국내에 기록된 외래식물의 다양성과 분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국 침입외래식물의 이해’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 침입외래식물의 이해에는 외래식물의 확산성 및 침입지위와 같은 기능 특성과 표본 자료에 의한 분포도를 함께 제시해 있다. 책은 침입외래식물 320분류군의 기능 특성(확산성, 침입지위 등), 분포도 및 사진을 비롯해 관심외래식물로 구분된 25분류군, 불확실 외래식물로 구분되는 40분류군 등의 목록이 담겨 있다.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이번에 발간한 서적이 외래식물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대부분 의도치 않게 흘러들어온 외래식물에 대해 무조건 비난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과학적인 평가와 합리적인 관리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비매품이며 국립수목원 누리집(www.kna.go.kr) 연구간행물 게시판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누구나 무료로 열람, 인쇄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p>광산구 오선동 공장(진국산업단지내)</p> <p>대지 2531평 건물 753평 최저가 4,278,000,000 감정가 6,112,000,000</p>	<p>서구 치평동 근린상가(세정아울렛)</p> <p>전용면적 35평 최저가 721,000,000 감정가 1,610,000,000</p>	<p>동구 충장로5가(업무시설)</p> <p>대지 400평 건물 329평 최저가 3,304,000,000 감정가 3,406,000,000</p>	<p>광산구 쌍암동 (무인텔)</p> <p>대지 415평 건물 577평 최저가 2,521,000,000 최고가 4,502,000,000</p>
<p>서구 화정동 원룸(화정역인근)</p> <p>토지 94평 대지 157평 최저가 784,000,000 감정가 784,000,000</p>	<p>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p> <p>토지 118평 건물 305평 최저가 742,000,000 감정가 1,059,000,000</p>	<p>운림동 기전빌라</p> <p>22평형 6가구 (수역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탁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p>	<p>제일오피스텔 29층</p> <p>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p>